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년 1월 7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의 2016년도 아젠다 제13차 제안: 종합적인 사법제도 및 재수감 개혁으로 미국을 선도해나가는 “권리 우선(RIGHT PRIORITIES)” 이니셔티브 출범시키다

*커뮤니티 학교에 대한 1억 달러의 투자로 낙오 학교와 고결핍 학교들을 변화시키다*

*Urban Youth Jobs Program에 대한 5,000만 달러의 투자로 10,000여명의 빈곤자들 또는 위험 상태에 놓인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험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재활을 더 잘하고 대규모 수감의 경향을 깨트릴 수 있도록 수감 대책을 널리 알리다*

*Manhattan D.A. Vance와 협력하여 칼리지 단위의 교육 프로그램을 주립 교도소에 제공하다. 이는 750만 달러의 투자로 가능해진다*

*법원행정처, 청소년 범죄로 사면 받은 사람들에 대한 범죄기록 정보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하다. 주지사, 연령 상향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6년도 아젠다의 제13차 시그니처 제안: 사법제도와 재수감 개혁에서 미국을 선도하는 곳이라는 뉴욕의 입지는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권리 우선(Right Priorities)” 이니셔티브를 발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의 제안은 위험 상태에 놓인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기회를 찾도록 하면서, 또한 형사 기소된 시민들에게 재활, 가정 복귀, 지역사회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발전을 이뤄냈지만 너무나 많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출구 없는 형사 기소에 발목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뀌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감옥에 다시 돌아가는 것 말고는 모든 문이 닫혀 있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내 커뮤니티와 수많은 가정의 보다 나은 삶과 안전을 위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주지사의 권리 우선(Right Priorities)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은 통합된 방식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것입니다:

-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사법 제도를 현대화하여 범죄를 저질러 감옥과 교도소로 가는 방식을 개혁한다.
- 교소도에서 보내는 시간을 활용하여 행동을 바꾼다.

- 석방 후 중요한 기간에 관심을 집중시켜 사람들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가장 취약할 때 지도해주고 지원한다.
- 16 – 17세 청소년들을 위한 사범 활동을 수행한다.

## **1. 커뮤니티 학교**

주지사는 모든 학생들이 잘 준비되어 있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들과 함께 노력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낙오 학교와 기타 요구사항이 많은 학교들이 커뮤니티 학교로 변신할 수 있도록 1억 달러 투자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투자는 학생들에게 일찍부터 긍정적인 미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관심을 못 받고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높은 범죄 발생 경향을 없애는 데 중요합니다.

커뮤니티 학교 변화에 대한 이와 같은 새로운 투자는 문제가 많은 학군에 62개 커뮤니티 학교를 개발하기 위해 3,000만 달러를 투자했던 주지사의 2013년도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합니다. 커뮤니티 학교로 바뀌고 있는 학교들은 커뮤니티 학교 코디네이터 고용, 방과 전후 멘토링, 여름 학습 활동, 의료 및 치과 서비스와 기타 사회봉사 서비스에 추천하고 연결시켜주는 것과 같은 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대 50만 달러의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 **2. Urban Youth Jobs Program & 직업 훈련: 5,500만 달러 투자**

미국 보건및인적서비스부가 발간한 연구에 따르면 위험 상태에 놓은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이들을 범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취업은 장기적인 복지를 도모하는 친사회적인 기술과 훈련 개발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Cuomo 주지사는 뉴욕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청년들 간에 말도 안되는 높은 실업률과 맞서싸우기 위해 Urban Youth Jobs Program을 발족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발족된 후 높은 청년 실업률을 보이는 해당 도시 커뮤니티에서 1,565개나 되는 뉴욕 기업들을 통해 청년들 일자리를 31,239개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공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16년 Cuomo 주지사는 Urban Youth Jobs Program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데 5,0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이 투자로 뉴욕주는 전년도에 비해 10,000개의 추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2016년에 취업 청년의 수를 22,000명으로 늘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주지사는 위험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500만 달러의 투자를 제안하였습니다.

## **3. 교도소 수감 대체 방안**

지난 30여년 동안, 뉴욕주는 교도소 수감 대체 방안을 활용해 교도소와 감옥의 과밀 수용 인원 수를 줄여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카운셀링, 인지 행동 요법, 약물 남용 치료와 같은 견제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중 보건과 안전을 향상시키면서 주 재정을 절약해줍니다. 더우기, 프로그램 초기에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알코올과 약물 남용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방식이 효과가 있었고, 수요에 맞게 확대 재편되어야 할 필요가 발생했습니다.

사법 제도가 변함에 따라 교도소 수감 대체 방안을 현대화하여 이러한 서비스가 없어서 사람들이 교도소에 갈 높을 확률에 직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Cuomo 주지사는 ATI 프로그램을 확대 및 현대화하는 데 100만 달러의 추가 자금을 투자하여 고위험 및 고결핍 지역 사람들에게 더욱 더 관심을 쏟을 것입니다.

#### **4. 교육을 통한 범죄 행위 감소**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할 처지에 놓인 경우 재활이 최우선 사항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도소 내에 교육 프로그램을 두는 것이 이들이 사회에 다시 들어설 수 있고 재범율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RAND Corporation이 발간한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교도소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재소자들의 재범율과 재수감율이 50% 감소했고, 출소 후 취업율이 13% 높았다고 합니다.

재소자들이 학위를 취득할 자격이 되도록 돕고 성공적인 사회 재진입을 수행하고 커뮤니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뉴욕주는 DOCCS가 운영하는 교도소에서 칼리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맨해튼 지방검사 Cyrus R. Vance, Jr.가 얻은 형사 몰수(criminal forfeiture) 자금 750만 달러의 투자로 가능했던 이러한 확대 개편은 앞으로 5년 동안 약 1,000명에게 칼리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관련 학위, 학사 학위 또는 업계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1,000여명의 수감자들이 주 교도소에서 칼리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최대 500여명이 매년 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등록할 수 있어서 연간 등록율이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재적응 프로그램은 재범율을 줄이고 공공 안전을 향상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라고 Vance 지방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지청은 법집행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중죄로 기소되어 타인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을 집행하고 징역형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재적응 전략 없이 교도소에 보내면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할 개인의 잠재성과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재소자들에게 교도소에서 나가 다시는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최고의 기회를 주어 재범 사이클을 단절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안전 문제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CUNY의 ISLG(Institute for State and Local Governance)는 관련 기관 및 자격이 되는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프로세스를 감독할 것입니다. SUNY와 CUNY는 주 전역에서 반영하여 이행할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기준을 마련하고 참가자들이 출소 후 커뮤니티에서 교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전환 프로세스를 촉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효용성과 출소 후 재범을 및 커뮤니티 재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제3자 연구기관도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 가을 쯤에는 수업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UNY는 CJII(Criminal Justice Investment Initiative)의 일부로 재소자들이 출소 후 학업 및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SUNY 총장 Nancy L. Zimpher가 말했습니다.** “이들에게 대학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학생으로서 우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뉴욕 경제 및 뉴욕주 커뮤니티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이니셔티브의 중심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CUNY 총장 James B. Milliken이 말했습니다.** “대학 교육은 기회를 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대학 교육은 재소자들이 출소 후 사회로 돌아왔을 때 직장을 구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 **5. 출소 후 첫 6개월 동안 과도기 지원 서비스 제공**

형사 범죄로 출소한 후 6개월의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간동안 사람들은 재범을 저질러서 그 스스로 피해가자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주지사의 사회 재적용 아젠다에는 이 기간 동안 이러한 임시 지원 서비스, 즉 가족을 만나고, 일자리를 얻고, 또는 꼭 필요한:

- 주택 입소 자격을 얻는 데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과도기적 주택을 이용하는 것이 포함되고 이를 코디네이팅해줄 것입니다. 이 과도기적 주택이 없다면 사회로 돌아온 출소자들은 노숙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일자리를 얻고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 출소자들이 가장 열심히 일하고 충실한 직원들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관계 형성과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 사업주가 이들 출소자들의 고용을 꺼려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임시 취업을 포함해 일자리 연결해주기.
- 중독, 정신건강 필요성 및 만성질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출소 후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Medicaid 기금을 통해 의료 및 정신 건강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이러한 상태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약물 과용, 중병 및 노숙 위험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6. 16 – 17세 청소년을 위한 사법 정의 구현**

주지사는 중범죄가 아닐 경우 형사책임 적용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재도입해서 아이들이 성인들에게 적용되는 형사 소송 절차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현 16 – 17세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범죄 기록이 드러나지 않는 청소년 법정과 달리 평생동안 성인 범죄 경력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North Carolina 주는 현재 16 – 17세 청소년을 형사 범죄 상 성인으로 취급하는 유일한 두 개 주로 남아있습니다.

## 7. 사면된 사람들의 범죄 경력 확인 제한

지난 해, Cuomo 주지사는 16 - 17세에 비폭력 범죄로 기소된 자들에게 10년 동안 기소를 면제해주는 [조건부 사면을 단행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조치를 보완 및 강화하기 위해 주지사가 이 프로그램에 따른 사면권을 행사할 때 법원행정처(OCA)는 뉴욕주 법원의 형사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민간인의 접근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OCA는 개인과 회사에게 범죄 경력 정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법원 시스템은 본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라 사면된 사람과 관련한 범죄 경력 정보를 이제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그리고 독립된 조치로서 법원은 이제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수감 중인 16 - 17세 청소년들과 관련된 형사 범죄를 신속하게 추적하여 젊은이들이 재판 전 성인 교도소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급적 줄이도록 할 것입니다.

**Lawrence Marks 수석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사법제도가 어린 범죄자들을 취급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그간 보여준 활동으로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 입법조치로 형사 책임 연령이 상향조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정부의 실무과와 사법과가 법에 명시된 현 제도에 따라 불필요하게 가혹한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16세 또는 17세 어린 나이에 비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사면을 단행하고 이러한 기소 정보가 더 이상 일반인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마찬가지로, 16 - 17세 청소년들과 관련된 판결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 이 사건들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총장 Jeremy Trav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주지사가 발표한 사법제도와 사회 재통합 이니셔티브는 아주 과감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인상적인 서비스와 정치 개혁은 교도소 수감 대체 방안 확대에서부터 교도소 내 칼리지 확대 편성, 출소 후 중요한 기간에 과도기적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활동 집중에 이르기까지 출소하는 뉴욕주민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보다 사회에서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저는 뉴욕주민, 교육자, 오랜 사회 재통합 정책 신봉자로서 이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Cuomo 주지사의 제안은 우리 뉴욕주는 스마트하고 효과적인 사회 재통합 정책에서 미국을 선도하는 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을 사법제도와 사회 재통합 개혁의 리더로 변모시켰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3개 성인 및 청소년 수감 시설 폐쇄,
- 어린 나이에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최소 10년 동안 재범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에게 사면권 부여,
- 주 교도소의 독방을 활용해 종합 개혁 단행,

- 뉴욕 주정부기관의 인력 채용 시 “공정한 기회” 제공,
- 뉴욕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소 혐의만으로도 차별하는 행위 종식.

###

추가 뉴스는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